

제19호 2007.09

# 서구의회보

- ▶ 신임의장 인사말
- ▶ 5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원 현황
- ▶ 회기별 안건목록 및 결의문
- ▶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 의원기고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문학마당(갯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 제5대 제1기 서구의회 출범



△ 제5대 서구의회 제1기 의장단(의장:고월출)이 2007년 5월 28일부터 새로이 구성되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래 의회 기능인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균형과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회”가 되도록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항상 노력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 Contents

제19호 서구의회보 2007.09



## 신임의장 인사말 04

/ 서구의회 의장 고월출

## 5대 전반기 서구의회 의원 현황 06

## 회기별 안건목록 및 결의문 09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 사업 시 부담금 조속 지원 결의문

/ 수도권 매립지 순환매립 반대 결의문

/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 결의문

##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6

## 의원기고 20

/ 개발목적 맞는 조성이 필요하다. / 송 영 우 의원

/ 구도심 재개발사업 주민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 구 재 용 의원

/ 서구의 당면한 과제와 대처방안 / 전 원 기 의원

/ 왜 서구인가? 왜 또 서구인가? / 홍 순 목 의원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8

## 문학마당(갯벌) 30



발행일 : 2007년 9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월출

편 집 :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 화 : 032)560-4507~8

F A X : 032)561-4336

##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의장 고월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서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5대 의회는 주민과 가장 밀착한 대의기관으로서 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서구의원 모두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힘에 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구민이 없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은 없는지, 제도의 오류로 인해 좌절하는 구민이 없는지 늘 가까이 살피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뛰고 느끼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는 인천 아니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서 선진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일반도로화 가정뉴타운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규모 있는 사업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각종 건설사업의 이면에는 각종 소음과 분진 등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환경의 문제, 그동안 일구어 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등의 민생과 지역경제의 문제 등 각종 현장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미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화합과 양보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는 지난 7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03개의 시정사항과 40개의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성숙하고 내실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서구의회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기초로 하여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구민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서구의회에 대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 의장 고 월 출

#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고 월 출**

(비례대표)

부 의 장



**강 성 구**

(신현원창,석남1,2,3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구 재 용**

(검암경서동,연희동)

간 사



**전 원 기**

(검단1,2,3,4동)

위 원



**홍 순 목**

(검단1,2,3,4동)

위 원



**전 재 안**

(가정1,2,3동)

위 원



**최 용 환**

(신현원창,석남1,2,3동)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신현원창,석남1,2,3동)

간사



**홍순목**

(검단1,2,3,4동)

위원



**민태원**

(검암경서,연희동)

위원



**구재용**

(검암경서동,연희동)

위원



**박구**

(가정1,2,3동)

위원



**임동주**

(가좌1,2,3,4동)

임동주 의원  
2007년 4월 25일 실시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5천215표(50.11%)를 얻어 마선거구(가좌동)에서 당선된 임동주(한나라당)의원은 서구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가좌지역을 누구나 한번 오면 떠나고 싶지 않을 가좌동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검단1,2,3,4동)

간사



**최용환**

(신현원창,석남1,2,3동)

위원



**전원기**

(검단1,2,3,4동)

위원



**전재안**

(가정1,2,3동)

위원



**강성구**

(신현원창,석남1,2,3동)

위원



**안생준**

(가좌1,2,3,4동)

위원



**김영옥**

(비례대표)

# 회기별 안건목록

회 기	상 임	안 건 명	심의결과
제138회	의회운영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제청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보류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의회운영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원안가결
	본회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서구통과 일부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139회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사이버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보류
	기획총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의결 신청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2차분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 지원 결의안	원안가결
	본회의	제1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0회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회 기	상 임	안 건 명	심의결과
제140회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사계 절설패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안	수정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3차본회의	수도권 매립지 순환매립 반대 결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회기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141회	의회운영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본회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본회의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의장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회기변경의 건	원안가결
제142회	기획,복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수정안가결
	기획,복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가결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승인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의회운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예결특위) 지정의 건	원안가결
	의회운영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의회운영	제14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복지도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원안가결
	의장	제14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	원안가결
	기획총무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 서구의회 결의문 채택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 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 결의안

- 인천도시철도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면서 우리 서구를 통과하는 구간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구간 지상화 반대 의견을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밝히고자한다.
- 인천 서구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각종 폐기물 업체 등 환경오염 유발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기피시설이 있고 오류공단을 비롯하여 기계공단, 주물공단 등 공장 밀집지대를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인 백석초교에서 공촌 사거리 구간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 공항 철도와 더불어 지난 1월 북항 개항으로 인한 공해유발 품목이 오는 2011년까지 우리 서구로 이전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소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우리서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 공간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 및 교통 수요, 도시미관 등을 볼 때 도시철도 지상화는 건설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푸른 도시 인천 서구」를 말살 하려는 것이다.
- 이러한 지역사항을 고려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 통과 구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서구지역을 통과하는 전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로 건설 할 것을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오류지구 - 검단사거리 구간**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통과구간에 접하고 있는 왕길동 일원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로 책정되어있어 향후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백석초교 - 공촌사거리 구간**은 우리구에서 사업완료한 검암 1,2,지구의 공동주택단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인천 국제 공항철도 개통등 고가로 건설 될 경우 소음 등 환경적인 문제가 가중되므로 **지하화** 할 것 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가정오거리 - 가좌IC 구간**은 기존에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동서간이 단절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었던 지역으로 고가로 건설 될 경우 구역 단절은 물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고층 건물사이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소음 피해 유발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 시킬 것이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구간에 대한 고가화 계획은 도로 중앙에 고가를 계획함으로써 녹지면적의 축소, 도시경관 저해와 더불어 고가하부의 슬럼화등 동서 간 지역이 양분됨에 따라 반드시 **지하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

-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상기 3개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40만 구민, 각급 사회단체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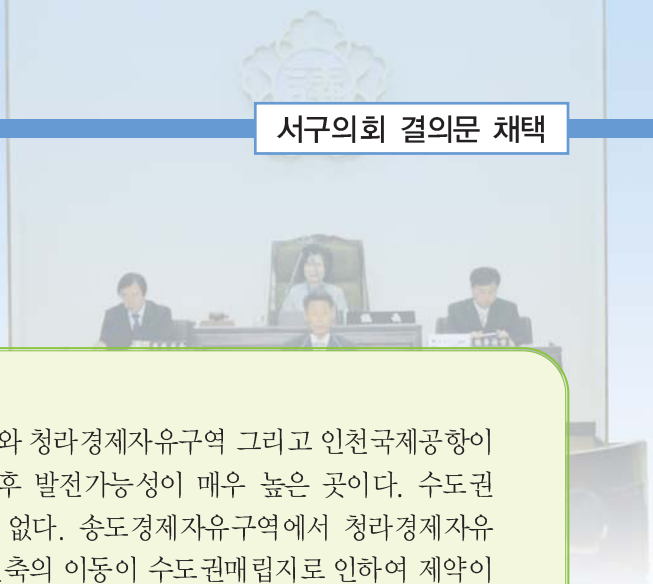
2007년 2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수도권 매립지 순환매립 반대 결의문

-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지분 71%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순매립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차로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임하라.
- 2000년 10월에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2007년 1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주민대표 그리고 3개 시·도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 등이 회의를 가진 바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매립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오직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 다툼으로 일관되어 있다.
- 1992년 당시 정부와 3개 시·도는 매립이 완료되면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환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와 검단의 주민들은 매립지관리공사의 드림파크사업을 공원화를 통한 주민환원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오로지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지분에 대한 권리의 유지에만 몰두해 있다. 제1매립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1차로 매립이 끝난 부지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어 재활용 연료로 사용하고 다시 매립장으로 활용한다는 순환매립계획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천광역시 서구와 검단의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대손손 쓰레기 매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으며 살아야 한다.
-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운운하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골프장 건설에 동의해 달라고 서울시에 부탁하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발전소, 골프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방대해진 공사 조직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안전하게 매립하고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책무를 잊은 지 오래다.
- 인천광역시 서구와 검단지역에 거주하면서 십수년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은 누가 보호할 것이며 또 누구를 의지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또한 검단신도시계획과 수도권매립지의 드림파크 계획을 믿고 이곳에 이주해 온 주민들의 실망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대손손 쓰레기 매립장의 피해를 보면서 살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재산권 운운하며 순환매립을 통해 영원히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서울시는 그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차로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사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민에게 환원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를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와 검단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



-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 서북권역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송도와 청라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경제자유구역과 삼각벨트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수도권 어디에서도 이만한 요충지에 6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그리고 다시 수도권 서북부지역으로 이어지는 발전축의 이동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지분구조에 따른 지자체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와 검단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폐기물을 매립해 온 3개 시·도가 매립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알박기식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동아매립지를 보라! 어느 누가 동아매립지가 국제금융단지 등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게 될 줄 예상이나 했겠는가? 서울시 상암동의 난지도 매립장을 보라! 이제는 혐오시설은 찾아 볼 수 없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의 공원과 월드컵주경기장 등 스포츠시설 그리고 주거지가 잘 어우러진 선호 지역이 변모되었지 않았는가? 수도권매립지 600만평은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잠재개발지로 남겨두어야 한다.
-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매립지 내에 2014년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 계획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인운하의 건설사업에 조건없이 협조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는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지역주민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 등의 의도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야 한다.
-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8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와 경기도는 순환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매립 완료된 부지의 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임하라.
  2. 서울시와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상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라.
  3.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매립완료부지에 대하여 하늘공원 수준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주민에게 환원하라.
  4.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는 주민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장기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라.
  5.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될 경기장을 매립지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조건없이 협조하라.

2007년 5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가좌시설 녹지 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결의문

-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유해 산업 정비 및 인근 공단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 쉼터 확보로 공장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3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석남·가좌 완충(시설)녹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중 석남녹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단계 사업은 마쳤으나, 시의 예산지원이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는 재건축아파트들이 속속 준공·입주를 앞두고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 된다.
  - 이로 인해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7만3천평에 달하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1만2천평만이 준공되고 나머지 6만1천평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 여기에는 가좌시설녹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보조금이 제 때 내려오지 않은 탓에 있다. 실제로 석남 시설녹지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855억원 가운데 구 자체 투자비는 구 발행 지방채 164억원을 포함해 현재 399억원(46.7%)을 투자한 반면, 511억원을 투자기로 했던 시에서는 2003년 10억원, 2005년 109억원을 제외하고는 2004년, 2006년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계획예산 151억원중에서도 52억원만을 편성했다.
  - 이로 인해 석남시설녹지 사업에 대한 미지급된 시 보조금은 현재 34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가좌시설 녹지를 포함하면 모두 411억원에 이른다.
  - 이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을 적시에 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별 조치없이 서구에 기채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바 서구의회에서는 시설녹지사업 시 부담금 조속지원 또는 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장은 석남·가좌시설 녹지사업에 따른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을 차기 추경시에 전액 반영하라.
  2.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이 안 된다면 시설녹지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즉각 추진하라.
  3. 상기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구민, 각급사회단체 등과 함께 위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경인운하건설사업 조기시행 촉구 결의문

-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지 서울의 외항으로만 불리던 우리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이어 지난달 17일 마침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다시 한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하여는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여기에는 지난 12년간을 끌어온 경인운하사업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인천 서구 시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은 이미 지난 1996년 10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안타깝게도 2003년 이후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경인운하건설은 인천 서구·계양구를 흐르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면서 물류 수송수단의 다양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인천의 산업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동안 경인운하를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네차레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통해 해소되었으며, 경제성 또한 KDI와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인운하건설에는 총 1조 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운하가 개통되면 대규모 홍수예방은 물론, 경인고속도로와 서구 일원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수질 확보와 함께 새로운 물류유통로를 보유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국책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1.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체계의 일대 혁신과 나아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이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아시안게임의 조정·카누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대 중국 및 남북한 교류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인운하건설사업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쟁점으로 표류하지 않고 조속히 착공 건설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6. 1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Q & A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전 원 기 의원  
(검단1,2,3,4동)

**Q** 1. 검단 신도시의 관문인 백석고가에 서구를 상징하는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A** 교량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도색 및 경관조형, 야간조명등의 백석고가 경관조성사업을 계획중이다. 그리고 우회도로의 경우 검단 신도시사업과 함께 검토요청을 하겠으며, 서구를 상징하는 아치 조형물 설치하는 추후 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홍 순 목 의원  
(검단1,2,3,4동)

**Q** 1. 악취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방안은?

**A** 첫 번째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개지역(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인천서부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07년 1월 23일까지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와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소,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소등 총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1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비산먼지다량 발생사업장 주변도로 4개구간 6km에 대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운영하고 있으며, 검단지역에 우리구의 대형공사장에 "청소의 날"을 운영, 매월 1회 이상 자체 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1차적으로 대기1종 사업장과 보일러 및 간접가열 연소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총량으로 규제하여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다.



구 재 용 의원  
(검암경서, 연희동)

**Q** 1. 에코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구청장의 견해는?

**A** 폐수처리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사업장을 이주시켜 주거지역에서 격리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동 부지에는 공해공장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폐수 수탁처리 업체 등 악취유발 업체는 집단화함으로써 폐수 및 악취절감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항 한진 중공업 부지 약13만 2천㎡에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춘 환경 에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에코단지의 청정기술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에코단지 부지가 반영되면 도시계획 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겠다.

**Q** 2. 서구 영어마을 운영에 방식 변경결정 배경, 재경부 승인절차와 영어마을 관외개방에 대한 견해는?

**A** 첫 번째 서구영어마을의 운영방식 변경 결정배경으로는 외국어교육특구 사업비 절감을 위해 학교 원어민 배치 사업과 영어마을 구축·운영을 통합하고 시 영어마을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통학형 영어마을모델을 도입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구의 재정부담 해소와 민간전문외국어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재경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특구 사업목적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세 번째 영어마을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활용도도 높이고, 서구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한 대외 홍보로 장기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금년초 특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4기 운영부터 관외 거주자에게 영어마을을 개방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대비 등록 미달시에만 정원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서구민과 관외자의 수강료를 차별화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추가수익은 관내 차상위 계층 지원 및 영어마을 시설투자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강생 모집 확대를 위하여 초등 특별프로그램, 유치아동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Q**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 자문기구로 국가업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결의사항으로 계양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구 한곳에서라도 지원하면 우리구도 지원하자는 요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박 구 의원  
(가정,2,3동)

### **Q** 1.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민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은?

**A** 첫 번째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문제는 기 관계부서에 전달되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측에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경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다.

셋 번째 본 사업지구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과 상가입주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해 사업구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는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사업지구에 건설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송 영 우 의원  
(신현원창, 석남12,3동)

### Q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와 관련하여?

**A**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우리구가 관내의 발전소로부터 제대로 지원 받고 있는지의 연구과제 결과 1995년 법개정으로 10년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법상에서 규정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의 지원금 총액 225억 3천 4백만 원을 전담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기반조성사업 센터와 해당 발전소로 6월에 청구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구의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정식 청구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기획단과 법률자문단, 관계전문가, 실무부서가 적극 대응하여 지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최 용 환 의원  
(신현원창, 석남12,3동)

### Q 1.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건설과 관련하여?

**A**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금번 7월 3일 인천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 서구의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저버리고 단순한 경제성 및 사업의 시기성만을 따져 경인고속도로 구간 2.7km에 대하여만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발표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이에 구청장인 제가 모든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철도 2호선 변경 투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참여한 것은 일상적인 구청의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큰 현안 문제이고 우리지역의 100년 대계를 위해 가장 절박한 문제인 도시철도 2호선의 지중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매진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전 구간 지중화 관철에 혼연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 Q 2. 석남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

**A** 현장 작업공간의 협소와 인근 주거지 밀집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에 의거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준공예정일인 2007년 6월 3일보다 늦은 8월 초순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골조공사 부실시공 제보건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주요 구조부분(기둥, 벽체, 지붕)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 및 감리사측에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우리구 공사감독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감리, 시공사)모두는 매주1회 공전진행 대책회의를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잔여 공사기간 내에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건물이 완공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Q 3. 원적산길 시내버스 노선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

**A** 현재 원적산길에는 삼일여객(주)의 592번 마을버스와 (주)삼환교통의 14번 시내버스 등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수송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원적산길 해소방안을 위하여 2007년 3월 21일 5개 노선의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시행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임 동 주 의원  
(가좌1,2,3,4동)

**Q** 1. 가좌동 노인문화센터의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차원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할 의향은?

**A** 현재 우리구의 계획으로는 서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가좌권지역과 서구노인복지회관의 가정·석남권역, 그리고 연희·검암권역 및 검단권역으로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Q** 2.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의 편입지역을 푸른 테마도시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

**A** 가좌지역은 주변이 공장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인천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대규모 공원 조성 등이 기본 설계 용역 내용에 담겨져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사업진행시 서구의회 및 주민의견을 잘 수렴토록 준비에 최선을 하겠다.





송 영 우 의원

## 개발목적 맞는 조성이 필요하다.

**도** 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검단산단) 조성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거론된 녹지 및 공원 비율 대폭 상향조정을 비롯해 이날 이어진 보상설명회에서는 보상대상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검단산단 분양 방식 및 제조업종 제한을 둘러싼 논란 가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검단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종이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9개 업종으로 제한한다고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도개공은 올 연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제외된 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체들은 현실에 맞는 분양방식 및 지자체가 아닌, 국가 정부 차원의 개발로 변경,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검단산단은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 부지 확보 및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정 및 개발목적 대로라면 우선 서구지역 기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기업체들은 산단 조성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상 업체 및 서구 관내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 업체 및 희망업체 대상 '분양(입주) 우선순위'로 선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개공이 발표한 '검단산단 유치 업종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개공은 2006년 12월 26일 최초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에 따라 총 23개 중분류 업종중 7개 업종만 유지한다고 했다가 올 3월 23일 변경공고를 통해 7개 중분류 업종유치에서 9개 중분류 업종으로 변경했다. 추가업종(2개)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과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이다.

현재 서구지역에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체는 모두 5천700여개 업체. 이 중 검단지역 소재 기업체는 2천 200여개 업체로써 전체 업체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다(2006. 제13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이를 토대로 검단지역 일대 제조업체 업종과 등록업체수를 감안하면 상당수 기업체가 입주(분양)를 못할 상황에 이를게 뻔하다. 따라서 지역 업체의 업종별 분포율을 감안, 면적의 불



균형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안으로는, 현재 서구일대와 산업단지 및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 활동 중인 기존 기업체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가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산업구조를 토대로 한 형평성 있는 유치업종 선정과 배치계획(구성비율) 재구성에 따른 의견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서구지역 기업체(5천 700업체)의 경우 종사원 9명 이하 업체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10~19명의 종사자 규모의 업체가 900개 업체를 감안하면, 지역 업체의 규모와 능력이 아주 영세하다 하겠다. 이런 현실속에서 기존 3,300㎡나 16,500㎡ 단위처럼 대규모적인 분양 방식을 채택할 경우 과연 얼마의 기업체들이 입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적인 분양방식이 아닌, 1,650㎡단위의 분양계획 및 시행 검토가 절실하다. 기업체의 규모와 능력을 충분히 감안한 자율적인 분양(임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양가격을 들 수 있겠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보상가와 산단 개발예정지역 현재 지가 및 예상되는 보상가액을 고려해 볼 때 분양가격은 적어도 3.3㎡당 2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일반분양'이 아닌 '장기저리 임대방식' 분양실시를 내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1,2단계별로 진행된다. 이처럼 소규모적인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차원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기업체들의 한 목소리다.

김포지역의 '양촌지방산업단지'와 '학운지방산업단지'와의 삼각벨트 LINE을 구축, 이들 3개 지방산업단지를 중앙정부차원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이유는 단순 중소기업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김포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와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신도시들의 '자급자족'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검단산단. 지역 기업체의 규모 및 유치업종의 선정과 배치계획(구성비율)에 따른 형평성등을 충분히 고려, 산단 지정 및 개발목적에 맞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구재용 의원

## 구도심 재개발사업 주민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인천은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이 새로운 미래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엄청난 산고를 치르고 있다. 세계수준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케치플레이즈를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세계인이 참여하는 주요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케팅을 발빠르게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일손마저 놓은채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의 어느 곳보다 서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가정뉴타운 개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가정동 연합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해왔고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권내에 포함되어있는 주민들은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고 서민들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정동 뿐만이 아니라 백석동 한들지구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들지구대책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백석동 일원 56만8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확정했다.

이에 한들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시(市) 담당자를 만나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 토지공사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시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토론회에서 “도시개발의 주체는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되어야하며 개발로 인해 발생한 부적절한 이익은 환수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정뉴타운 조감도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공익적 사업인 만큼 사업을 조합과 기업에게만 맡기고 공공기관은 인·허가권만 가진 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참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함을 인천시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베드타운으로만 여겨지던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 유치되고 국제공항이 자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도시

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구도심이나 주요목지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 일방적 지구지정이나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인해 정작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에서는 도시전체에 대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각기 지정된 지구단위에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자주성을 갖고 재산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구청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항상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정부를 대상으로 관내 지정된 지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시정부의 횡포로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전 원 기 의원

## 서구의 당면한 과제와 대처방안

구 의원 임기 4년 중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하면서 저의 서구의회에 믿음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40만 서구민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및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소화했는지, 주민의 복지향상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돌아켜보며, 그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왔으나 다소의 시행착오나 경험부족으로 인해 만족스런 성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노력했고, 또한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각오를 매일 다지면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참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우리의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 나름의 생각을 피력함으로써 서구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하여 서구 전 구간 지하화를 관철해야 한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해야 하지만 우리 서구민이 한 목소리로 해결 방안을 찾아 전진해야 하며 또한 서구민들 간의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

2. 신 도심권과 구 도심권의 균형있는 병행 발전으로 지역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신 도심권인 검단 신도시와 청라경제자유구역,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적 자립 도시로 건설되어야 하며 구 도심권도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과 함께 인천시청 유치, 각종 도시 재생사업 등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협심해야 할 것이다.

3. 검단 신도시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자족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특화 도시를 브랜드화해야 하며 생산과 소비, 문화 여가활동이 함께 충족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아울러 검단 산업단지도 신도시와 걸맞게 굴뚝 공해산업은 지양하고 첨단 산업으로 유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리적인 면에서나 인구증가 및 전 지역 사업시행에 따라 검단신도시와 검단 산업단지,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 출장소 신설이 아주 시급하며, 기 협의된 검단개발사업단 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4. 석남·가좌 완충 녹지 사업은 조속히 재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3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를 감안해서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서구 공촌동으로 이전 계획한 통합 예비군 훈련장 백지화 요구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방심하고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는 확정 발표 후 수습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서 이미 경험한 바를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6. 국·시책 사업을 챙기자. 물론 국·시책사업으로 우리 구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 소재한 토지의 사업시행에 주인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청라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사업, 경인운하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각종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해결할시 도움이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나 지역원로 등 유지분들과도 힘을 합쳐 우리 서구가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7. 서구의 흉물로 남겨진 1,500만톤의 순환골재 처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체나 비공개 처리방안은 안 된다. 모든 정보를 서구민들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정책적인 의사 결정만이 해결 방안이다.

8. 2014년 아시안 게임 종합 경기장 유치 매진과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각 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기장 유치야말로 지금이 가장 적기다.

우리 서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에 있고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수도권 매립지 등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9. 북항 고철과 잡화목재부두 구성에 따른 환경적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각종 환경적으로 혐오시설이 많은 서구에 50년 앞을 보고 건설되는 북항과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교통과 환경 문제가 예상되므로 친환경적 북항 및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주거환경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10. 마지막으로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지만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특히 돌봐야한다.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잘사는 계층은 잘 살지만 어려운 계층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복지 국가라 말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소외계층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서구가 주민행복 최고도시가 된다.

이외에도 많은 당면과제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서구의회가 집행부인 서구청과 합심하여 해결해 나간다는데 서로간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

이러한 일들을 힘써 처리하고 노력한다는데 대하여 당리당략이나 개인 출세의 잣대로 보지 말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 순 목 의원

## 왜 서구인가? 왜 또 서구인가?

“왜 서구인가?”를 놓고 그동안 두 가지 큰 흐름의 담론이 서구의 지도자들과 주민들 가운데에서 논의 되어 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고가화 건설구간이 왜 서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가?”가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왜 인천시청이 서구 가정 뉴타운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중순까지 서구는 마치 큰 홍역을 치른 듯,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듯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6월 14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남동구 서창동에서 서구 오류동에 이르는 약 29.2km 구간 중 네 곳 6.1km 구간이 고가화로 건설되는데 중요한 것은 네 구간 중 세 구간이 서구통과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구 주민들은 뿌리 깊은 소외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전철로 건설되기 때문에 고가로 건설되어도 소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고가로 할 경우 도시미관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한 보완장치를 통해 지역의 명소가 되게 하겠다고 도시철도본부측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주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남구나 남동구가 지하로 건설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중화하여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비율(BCR)이 1.0 이상이 되어야만 건교부 승인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수궁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구간 중에 고가로 건설되는 곳이 왜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지는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100%를 다 지중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주민들만이 자원부족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는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에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서구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정부와 인천시의 사정을 이야기 할 뿐입니다.

협오시설이나 민원을 야기하는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고통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서구민이 인천시에 느끼는 대체적인 정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타 구에 비해 개발이 늦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에는 각종 처리시설, 매립지, 발전소 등등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민원을 통해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 시내의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전 후보지로 서구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에는 인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4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서구 공촌동 훈련장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구 관교동과 계양구 계산동 훈련장의 경우 주변 주택가나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구로 옮기고 남은 기존 훈련장 터는 공원이나 학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훈련장을 한 곳에 모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서구에는 훈련장을 그리고 남구나 계양구에는 학교와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인천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서구와 인천의 균형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인천시청의 서구 이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청을 가정 뉴타운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서구의 지도자들은 인천시청이 가정 뉴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정 뉴타운의 지리적인 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시청이전으로 인해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서구뿐만 아니라 계양구, 부평구, 동구 등 인접의 많은 인천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제법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천시는 타 기초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계획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문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과감(?)했던 인천시가 인천시청의 이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서구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구의 주민들은 인천시에 거둬 묻고 있습니다. 왜 서구인가? 왜 또 서구인가? 서로 다른 두 질문에 인천시가 어떠한 답변으로 서구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줄지 그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



2



3



4



5



6



7



8



9

- 1 제주특별자치도비교시찰(07.4.9)
- 2 태양공단내도로 관련현장방문(07.4.11)
- 3 국민건강센터기공식참석(07.4.23)
- 4 어버이날기념행사참석(07.5.8)
- 5 북항특별위원회미산지방해양수산청방문(07.5.11)
- 6 제2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토론회(07.5.17)
- 7 서구민건강체험한마당행사(07.5.20)
- 8 독거노인칠팔순잔치축하방문(07.5.22)
- 9 북항조사특별위원회현장방문(07.5.23)



- 10 임동주의원 의원선서식(07.5.25)
- 11 장애아공동작업장방문(07.5.29)
- 12 도시철도항의방문(07.6.20)
- 13 도시철도지상화반대결기대회(07.6.21)
- 14 행정사무감사관련특강(07.6.28)
- 15 신현초등학생의회방문(07.7.5)
- 16 행정사무감사결과총평(07.7.27)

# 갯벌



심종은 국장

하늘을 나는  
팽이갈매기  
너만은 진실을 알고 있으리

억만년 이어온 조상 대대로  
발붙인 터전 위에  
새파랗게 펼쳐놓은 꿈의 자취

생명줄 붙박이장 되어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가며  
함께 어울려 마음껏 널뛰던 곳

움푹 패인 자국마다  
망각으로 휘몰린 옛 정취  
교박 되살리느라  
허영게 토해놓는 거품으로  
돌아선 지금  
끝 모르는 애상곡만  
하염없이 읊조리누나

### 심종은 의회사무국장

1996년 제7회『문학공간』시부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으며, 2000년 제4회『수필과 비평』신인상 2002년 제12회『문학공간』시부분 본상수상하였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국장)에 근무하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원, 갯벌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청 원	진 정
정 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 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 립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위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li> <li>-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li> <li>-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li> </ul>
불수리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li> <li>-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li> <li>-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li> <li>- 법령에 위배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li> <li>- 국가원수과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li> <li>-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li> <li>-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li> <li>-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li> </ul>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투 고 안 내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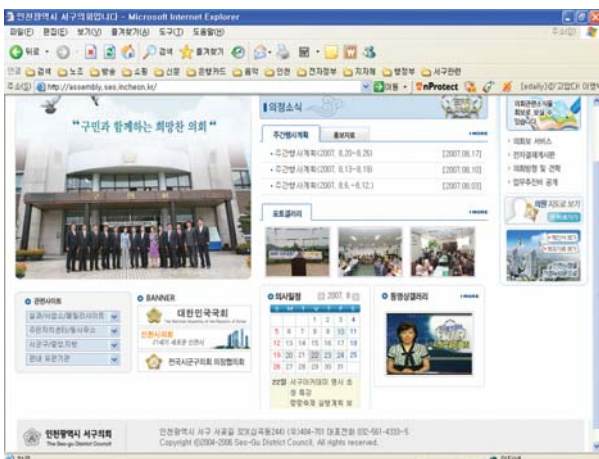
- **투고분야:**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발행주기:** 1년 2회(2, 8월 25일)
- **분 량:** 원고지 7~8매 내외
- **제출기한:** 매월발행 전월 말일(1월 31일, 7월 31일 ; 수시접수가능)
- **기타사항:**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사진 1매
- **보내실곳:**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

## 의회방청 안내

서구의회는 구민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 ○ 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안내

서구의회에서는 항상 열린 의회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안내, 회의록 검색, 의정소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방청안내

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방청을 원하시면 서구민이면 누구든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방청신청:**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방청문의:**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560-5852)

###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낱연행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